

강 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교운영위원회
올바른 참여가
학교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발행인: 오성숙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22-1(2층) 전화: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02-634-6508 02-634-4359 (FAX: 634-4359) 청주 0431-52-9541 (FAX: 0431-55-0354)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7-1795)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5-0341 (FAX: 0551-48-6264) 대구 * 053-741-7366 여수 0662-62-6541 익산 0653-856-0340 울산 0522-92-8053/4 여천 0662-84-5116

모두 5월이 생일이다

강 현 호

오월은
잘 닦인 하늘 높이
새 노래 소리들을 떠올리고
산마다 푸른 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하게 한다.

오월은
작은 나무 두 뺨마다
예쁜 꽃잎을 오려 붙이고
흐르는 시냇물 위에도
돌돌 휘파람 소리를 감아 놓는다.

오월은
싱그런 초록 바람의 옷자락을
슬쩍 훔쳐보고
풍선처럼 부푼 아이들 목소리도
빈 골목마다 풀어 놓는다.

하늘과 푸른 산과 새들은
오월이 생일이다.
시냇물가 작은 나무와 초록 바람도
오월이 생일이다.

골목마다 뛰노는 아이들도
모두 오월이 생일이다.

오월은
하늘도 산도 나무도 바람도
아이들처럼
모두 가슴을 활짝 펴게 한다.

어린이 한마당 전국에서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워야 할 어린이들의 날, 5월 5일에는 전국에서 많은 행사가 열린다.

그중 본회의 서울, 부산, 인천, 전주, 대구, 울산, 여천 등의 지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마련하는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며 내용도 충실해 지고 있다. 지역마다 행사 내용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민속놀이, 연극공연, 동요대회, 좋은 도서 전시 판매, 역사마당, 환경마당, 가족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전통 혼례 시연과 전통 생활 기구를 직접 다루어 보면서 우리 문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자리, 어린이 정서 발달을 돕는 연극 공연, 건전한 노래 보급을 위한 동요 대회, 환경 문제 인식을 위한 실험과 생태계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 등 평소 아이들에게 보고 들려 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했던 내용들이 행사 속에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다.

어른 중심의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자신들의 건전한 문화를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행사는 한부분 숨통을 트워 주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 한마당은 놀이를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문화를 제시해 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사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함께 생각하고 그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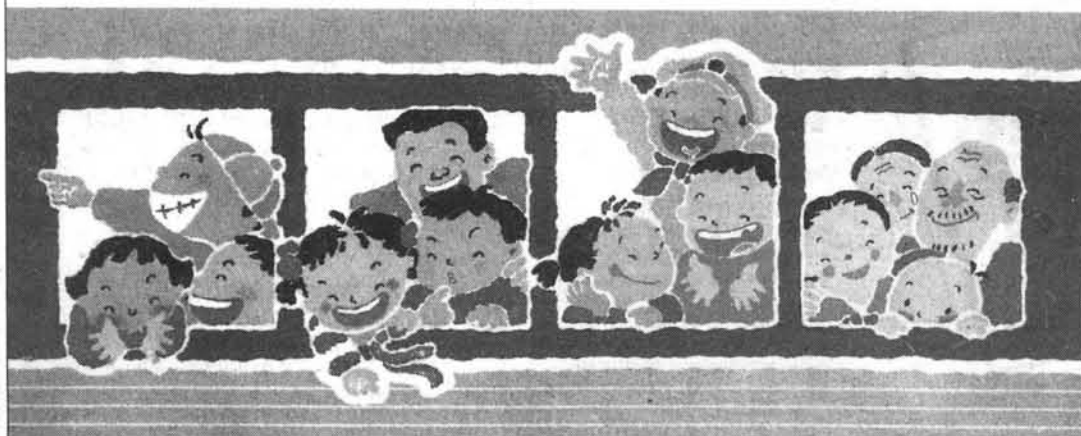
서울교육대학에서 열리는 어린이 한마당의 경우는 예상 인원이 1만 5천여명이라니 그 규모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로 전국에서 열리는 어린이 한마당 행사에 문제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참여 단체는 당일에도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이는 어린이 사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주간 설정을 제시하기도 한다.

5월 5일 하루,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행사가 치루어지고 마무리 되자니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는 어린이 한마당이 좀더 내실 있고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과 시기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축하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오성숙 회장이
지난 4월 9일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어린이 날
한마당

일시 : 996년 5월 5일 (일요일)

장소 : 서울교대, 서울 파리공원, 서울 마들근린공원,
인천교대, 대구교대, 강남대, 울산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사설

등록금 인상과 대학생의 죽음

지난 3월 29일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 재정 확보 및 대선 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도중 연세대 노수석군이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것과 부당한 등록금 인상이 계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여, 야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을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은 일단 은폐, 축소,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과 '학생운동의 고립화'라는 정권의 신속한 대응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 문제로 심한 혼란을 치르는 것이 연례 행사로 되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년사이 등록금은 거의 두배로 솟아올랐다. 특히 올해는 지난 몇 년사이에 가장 높은 25%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사학들이 인상을 짜고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학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봉급자들의 봉급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등록금 인상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올해 들어 신입생들의 등록금이 3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 가정에 대학생이 한명 있다면 일년에 평균 1천만원 이상 들게 된다. 평범한 봉급자의 연봉이 1천 수백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한 가정의 생계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 한심한 일은 등록금 인상률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4년을 비싼 등록금 꼬박 꼬박 내고 다니면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 영어 회화나 컴퓨터 교육은 사설 학원에서 따로 돈 내고 배워야 하니 학생들의 항의는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학 재단에 대한 불신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등록금이 폭등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즉 교육 시장 개방과 올해부터 도입되는 대학 종합 평가 인정제가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로 볼 때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자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비리 재단과 학교 당국에 떠넘기고 재단과 학교는 그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셈이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 재정 GNP 5% 확보 방안도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각종 교육세 신설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학생들은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 두려워 평화 시위를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다가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 사건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학부모들의 문제이다.

등록금이 올라가면 학원비, 과외비, 하숙비, 교재값과 같은 교육비가 덩달아 올라가게 마련이고 버스비와 공공요금도 이미 들쭉거리고 있다. 등록금이 불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일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이렇게

학부모위원회는 학교의 협력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자원이든, 추천이든 적극적 의지를 내비치면서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된 본회 회원들이 많다. 학부모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처음 생긴 만큼 학부모 위원들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 교사, 교장 모두 '학교 발전' '교육 효과의 극대화' '학교 공동체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졌다는 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적인 구성 및 진행,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찬조금 강제 부담 반대 등을 주장하는데 비해 많은 교장들은 예전대로 쉽게 학부모를 통해 기금 조성 및 관리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물론 찬조금의 강제 징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교육청을 통한 자발적인 기부금만이 가능하다. 설명을 통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학교운영 지원비에 책정할 수 있겠으나 그 금액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한다. 결국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이다. 이로 인해 각 학교마다 운영지원비 책정에 문제가 발

생할 것을 우려해 본회는 조례안에 학교운영지원비 상한선 책정을 삽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원 봉사나 수익성 행사 등을 통해 학교를 도울 수 있다.

교장과 뜻이 맞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모 위원들이 절대 학교 운영의 방해자, 훼방꾼이 아니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협력자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자.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해 준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모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자.

조례가 확정, 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학부모 위원들의 명단, 연락처 등을 학부모들에게 배포, 학부모의 청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참관이 가능하도록 미리 일시, 안건 등을 가정 통신문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한다.

구명희(학교참여위원장)

학부모 만평

이숙자



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교육

엄마, 선생님이 날 싫어하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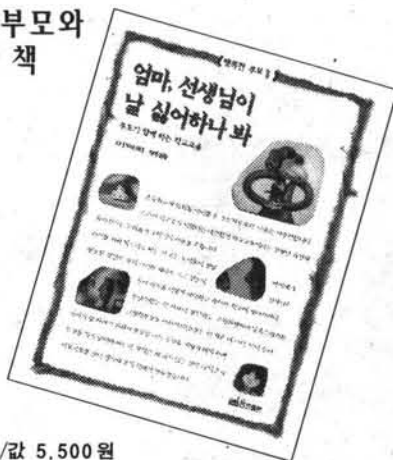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둔 초보학부모와 이미 다니고 있는 고참학부모를 위한 책

공립학교에 보낸 것이 잘한 일일까, 무슨 학원에 보내야 우리 아이가 뒤지지 않을까, 정말 봉투는 가져가지 않아도 되나, 명예교사는 어떤 것인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 학부모들의 절실한 문제를 실제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웅진출판

영업부 747-1234

신국판/272쪽/값 5,500 원



지은이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엮은이 이덕희

학부모와 교사,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며 무엇을 왜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책

1. 일학년 엄마는 일학년
 - 자식키우기/오숙희
 - 첫아이, 첫 선생님, 첫 만남/강명신
2. 크는 것은 아이의 몫이다
 - 준비물과 숙제, 학과공부의 홀로서기/조봉호
 - 어떤 과외를 어떻게 시킬까/김명신
 - 크는 것은 아이의 몫이다/박해란
3. 무엇이 좋은 교육인가
 - 아니,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함숙희
 - 중요한 것은 '바이발'이 아니다/김춘미
 - 영어의 깃발이 아무리 요란하게 나부끼더라도/김길중
4. 이제 당신은 학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 이제 당신은 학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김신일
 - 모든 아이를 위한 '사회적 부모'가 되자/전종자
 - 내가 경험한 학교 참여운동/구명희
 - 보람 있었던 명예교사/이소영
 - 참교육과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모임/김영희
5. 21세기는 새로운 부모를 원한다
 - 더불어 살면서 크는 아이들/노미화
 - 모든 엄마는 '올백'을 원한다/강영혜
 - 괴롭히는 남자아이, 건디는 여자아이/김정희
 - 능력은 도처에서 발휘될 수 있다/최보문

〈어린이 날 특집〉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선물

이 땅의 주인 어린이에게

노미화(인천 명신초등학교)

우리반에는 1학년 꼬마들 아홉명이 모여 살아요. 학교에서 집이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한참을 걷고 걸어서 오는데 한명도 늦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답니다. 선생인 내가 제일 늦게 오는 셈이지요. 아침이면 벌서 와서 두바퀴 뛰고서 신나게 놀고있는 우리반 아이들 모두가 운동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제는 집으로 가려고 운동장에 나가는데 우리반 아이들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선생님, 여기 새끼 독수리 있어요.” 하면서 거무튀튀한 털이 수북이 달린 새를 손에 쥐고 오더군요. 어떤 애는 꿩이라고 해요. 죽은 새였어요. 아이들은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나는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왠지 겁이 나서.

며칠 전에 우리 반 엄마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글쎄 우리 동영이가 부엌에서 죽은 쥐를 잡아가지고는 꼬리를 잡고 귀엽다고 들고 다니다가 상자에 넣어서 보다가 교회에까지 들고 갔다 왔지 뭐예요?”

서울서 이사온지 1년이 안된 동영이 엄마는 끔찍하다는 듯

이 말하는데, 아마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그 징그러운 쥐도 귀여워 보이나요?”

하는 그 엄마 말을 듣고서, ‘아, 나도 이 조그만 아이들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집 마당에 툭툭이라는 사나운 개가 있어요. 강아지였을 때 데려왔는데 이젠 커져서 털도 길어지고 몸도 커진 씩씩한 개가 된거지요. 이 개는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도 으르렁 거리고 짖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와도 쫓아가서 짖어대고 해서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몽둥이를 들고 그만 짓으라고 해도 도망가면서 또 짖어대요.

그런데 히안하게도 우리 아들 친구나 애들이 오면 짖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집에 처음 놀러온 아이들인데, 와서 만지고 쓰다듬고 해도 꼬리만 흔들고 가만히 있질 않겠어요? 아하, 이놈의 개도 뭔가 아이들하고 통하는게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아이들은 해꼬지 안하는 걸 알아서 저렇게 짹소리 안하고 앉아 있는가보다 했어요.

요즘 늦게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에, 길에 곱게 곱게 피어나고 있어요. 봄이면 어김없이 저렇게 곱게 피어나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 버스를 타고 오며 가며 감탄을 하게 되요. 바로 어린이 마음이 저런거야. 누가 힘들여 애써 키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땅을 뚫고 솟아나는 풀들이나, 메마른 가지에서 어느 틈에 싹을 틔워 예쁜 꽃망울을 터뜨려서 온 산을 봄 색깔로 환하게 물들이는 아기 진달래, 개나리, 볼때마다 세상에 그것처럼 예쁜 색깔은 없는 거 같아요. 그 고운 색깔을 만들어 내려해도 되지를 않지요. 어른인 내가 아이들 마음 따라갈 수 없듯이.

봄이면 얼었던 땅속에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서 들과 산과 개울을 아름답고 생기있게 만듭니다. 자연을 살리는 길은 바로 어린이 마음을 살리는 길 이구나 하는걸 이 봄에 깨달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말고 자라서 이 땅의 확실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엄마로

박지영(경기도 고양시)

나의 두 아들은 이제 제법 커 대화 상대가 된다. 교과서 같은 이 엄마에게 모범생인 큰 아이는 그대로 자랑이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 둘째는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몇 해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날, 아이는 책가방 없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가방은?”
“몰라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말문이 열린 아이 뒤를 따랐다.

“애가 아이스크림을 몰래 꺼내 먹으려 했어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오라고 책가방을 맡아 왔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까...”

하는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께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돌아섰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충격은 말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무표정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는 아단도 칠 수 없었다. 이후로 며칠을 두고 타일렀을 뿐.

그런 둘째와 이런 일도 있었

다. 동물과 곤충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개미를 관찰하고 키울 수 있는 집을 사 왔었다. 아이는 수십 마리의 개미를 잡아와 그 속에 넣고 길도 뚫어 주고 보금자리도 꾸며 주며 시간 가는 줄 몰라 했다.

몇 번씩 숙제를 재촉하던 나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해 개미집을 던져 버렸다. 눈물진 얼굴로 나를 원망스레 보던 아이의 그 눈빛.

아무 준비 없이 엄마가 되어 내 아이는 모두 최고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아이들을 키우며, 특히 둘째를 키우며 하나씩 둘씩 배워 나간다. 내 아이도 아이스크림을 훔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며 50점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키우며 나는 내 아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엄마로 거듭난다.

(박지영씨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 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걱정일 것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날’이 아니라 ‘오늘도 어린이날’이어야 합니다. 좋은 선물이나 나들이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끼리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면 따로 어린이 날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놀이의 날’로 정해보세요. 자녀를 위해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느새 놀이에 몰두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이1〉까막잡기 : 유아·저학년 용

•준비물 : 눈가리개, 위험한 물건이 없는 장소

•방법 :

① 술래 정하기- 술래 한명이 눈을 가립니다.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가 술래를 합니다.

② 쫓고 쫓기기- 술래는 술래 아닌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며 도망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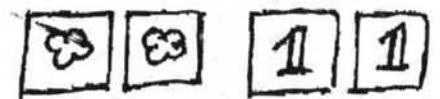
③ 알아 맞추기- 술래가 한명을 잡으면 만져보고 누군지 알아맞춥니다.

④ 술래 바뀌기- 술래가 누군지 알아맞추면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되고 못 맞추면 다시 술래를 합니다.

※ 박수를 치며 술래를 유인합니다. 잡힐듯 말듯 아슬아슬함에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술래를 해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나 곧 재미있어합니다. 균형감각, 공간지각, 청지각력이 발달되는 놀이입니다.

〈놀이 3〉 같은 모양 찾기: 유아, 초등, 중학생

•준비물 : 카드 여러쌍(두꺼운 도화지나 우유팩 뒷면을 재활용한다)



가족이 모여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을 그린다.

유아도 몇번 해보면 꽤 여러장을 할 수 있다. (20쌍정도)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 그림의 수준을 높이면 된다.



오른쪽 귀걸이 왼쪽은 원크

•방법 :

① 순서정하기: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② 뒤집기 : 1등부터 2장씩 뒤집는다.

③ 같은 모양일때: 2장을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면 갖는다. 그리고 한번 더 할 수 있다.

④ 다른 모양일때: 다른 모양이면 다시 제자리에 뒤집어 놓는다.

⑤ 끝내기 : 카드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하고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 유아의 경우 처음에는 2쌍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간다.

※ 조금씩 힌트를 주어도 된다. (“여기! 근처야”)

※ 처음에는 뒤집은 카드 모양의 이름을 계속 얘기해준다(“사과에”)

※ 다른 모양일 경우 반드시 그 자리에 놓도록 한다.

※ 카드를 뒤집어서 자기 앞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자리에서 뒤집어 모양을 확인한 후 가져오게 한다.

※ 기억력, 공간지각력 발달에 좋은 놀이입니다.

〈놀이 3〉 산가지 떼어내기 : 초등, 중학생

•준비물 : 가는 대나무, 또는 성냥개비 100여개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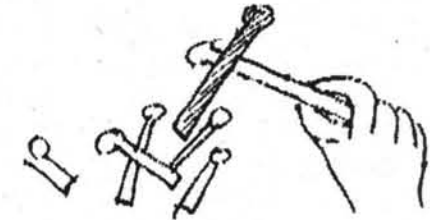
산가지는 옛날 계산할 때 쓰던 나뭇가지였습니다.

손쉽게 성냥개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

니다.

① 산가지 흠뻑리기 : 산가지를 서로 겹치게 흠뻑립니다.

② 자신의 산가지 갖기 : 각자 산가지 1개를 갖고 시작합니다.



③ 산가지 떼어내기 : 손이나 자신의 산가지로 다른 산가지를 떼어 냅니다.

④ 건드리지 않기 : 다른 산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떼어 내면 자기 것이 됩니다.

떼어 낸 산가지 이외의 다른 산가지를 건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 놓습니다. (제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님)

⑤ 끝내기 : 여러개의 산가지도 다른 것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한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가지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산가지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깁니다.

※ 어른도 매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주의집중력과 소근육운동이 발달되는 놀이입니다.

김수연(놀이연구회)

◇ 기획 특집-청소년 폭력(2)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져...

정부의 반응과 대책
청소년 폭력(학교, 학원 폭력)은 개인이나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사회 전반의 문제와 얽혀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풀어야 할 숙제인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반응과 대책을 보여 왔는가.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는 95년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경찰력을 동원해 전국 학교 폭력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 9천 7백 70명을 적발해 이중 9천 68명을 구속했다.

또 95년 12월 대통령의 학교 폭력 근절 지시에 따라 교육부, 내무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학교주변 사복경찰 배치, 음란 폭력 비디오 및 만화 근절, 유해 환경 업소 정화 등 각 부처 특성에 맞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일을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책은 지극히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몇 달간 반짝 실시하는 행정조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더욱이 9천 68명이라는 무더기 학생 구속은 비교육적 처사로 현장의 교사들로 부터도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근본 대책 없는 단속과 처벌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다. 사회의 배경과 냉대 속에 설 자리가 없어진 청소년들은 결국 또 다른 폭력 속으로 쉽게 흡수되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이 펴낸 '소년 범죄자의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 소년원 출신 9백 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들 중 63.2%가 과거 학교

에서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65.9%가 20세 이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청소년 범죄가 성인의 범죄로 이어지고 학교 안의 비행이 학교 밖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청소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화나 교육적인 바탕 위에서 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청소년 폭력의 예방은 시민 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는 시민 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정부나 학교에서 풀어서 주지 못하는 청소년 폭력 문제를 민간 상담 기관에서 해결하

시작하여 95년 11월 재단으로 발족되었으며 청소년 폭력 상담, 언론 홍보 작업, 도서 발간, 설문 조사 등 실제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해온 청소년 폭력 상담은 800건을 넘어 서고 있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은 자원 봉사자와 후원자의 도움을 더해 그 기반을 더욱 다지고 있다.

이곳의 상담 간사인 정유경씨는 "하루 빨리 학교 상담 제도가 자리 잡고 제 기능을 발휘해 민간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한다면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정부가 95년 12월 내 놓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안'을 보면 청소년 폭력의 심화 원인과 문제점으로 학가폭화, 맞벌이 부부와 결혼 가정의 증가, 입시 위주 교육, 학교의 생활 지도 역할 미흡, 폭력을 유발시키는 사회 환경, 자기 지식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있는 만큼 그 해결도 함께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청소년 폭력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이나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적 처리보다 장기적인 예방과 선도가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 관계자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폭력 방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 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과밀학급 해소로 인간교육 실천, 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해학생 선도 △민간 상담단체 설립과 활용 △건강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진학 탈락자의 재진학 기회 제공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이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는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각자의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 넘기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의 사회의식 필요

청소년 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폭력의 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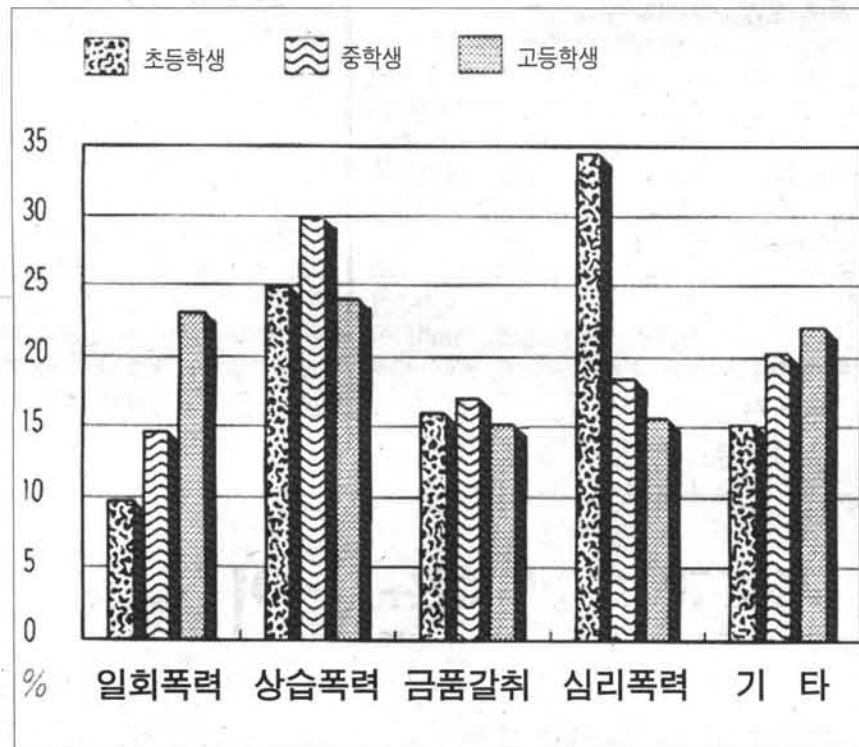
정유경씨는 학부모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며, "문제 해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또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복이 두려워거나 맞은 것이 창피하여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평소 부모들이 '남자는 맞고 다니면 안된다' '여자가 누구를 때려?' 등의 잘못된 사고의 틀로 아이들을 키워 쉽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항상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며 청소년 폭력은 남의 일이 아닌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생각을 넓혀 사회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송주비 기자)

“청소년 폭력 해결 위해

정부는 장기대책 세워야 한다.”



▲ 학력별 폭력피해 유형: 심리 폭력은 초등학생, 상습 폭력은 중학생, 일회성 폭력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를 생각하고 대책 마련도 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를 선도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일시적인 대처가 아닌 항상 청소년 폭력 예방에 나설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있다.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김종기씨가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는 사람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재를 털어 설립한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02-701-0098)이 그것이다.

순수한 시민 운동 차원에서

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있는 만큼 그 해결도 함께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청소년 폭력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 4.11 총선 모니터

언론 불공정 여전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 언론 모니터 팀은 4.11 총선을 맞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북 시민 운동 연합 공명선거 감시단의 신문 모니터 팀으로 활동하였다.

내용은 도내 4대 일간지의 총선 보도를 모니터 한 것이다.

전북 지역의 4.11 총선 보도는 지역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약에 관한 보도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뽑자고 유권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으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피상적이고 백

화점 식으로 나열된 공약들을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유권자들에게 공약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차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지 못했다.

정확성과 진실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신문이 후보자가 제공한 듯한 후보자 동정 기사를

확인도 안해보고 보도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해 거짓 기사를 내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유세장 메뉴로 인물론 운운하면서 명문고 출신을 내세운 것 등은 연고 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로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상함을 갖게 했고 제목 또한 '우중 유세 진흥탕 싸움 열룩, 텃밭, 철옹성 뚫기, 표심 잡는 전사들' 등 전투적이고 선정적이었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용어가 많아 신문의 공익성이 의심스러웠고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 하는 등 용어 사용에 부적절한 것이 많았다.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안보문

제, 장화로 비리사건, 노수석 군 사망, 야당공천현금등의 뉴스거리중 신문의 대부분이 여당에게 유리한 기사는 확대 과장하고 불리한 기사는 축소시키는 관행을 보였다.

공명선거 보도는 바람직한 선거 문화 풍토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으나 '막판 선거 과열, 혼탁, 점입가경, 공무원 선거 개입 수사' 등 불법 타락의 주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분위기만 강조한 과열 보도는 선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투표율 저조의 한 원인이 되게 했다.

(전주지부 언론 모니터팀)

◆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10)

음란물도 성 교육 자료 된다



여영환(여성학자)

3)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 차이

사춘기가 되면서 남녀의 관심은 이분화됩니다. 남학생들은 여자의 각선미나 음란성적, 음란비디오 등 시각적 매체에 관심이 많은데 비해 여학생들은 남녀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그리고 있는 낭만소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학생이 구체적인 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학생은 추상적인 사랑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중학생 남녀가 만났다고 합시다. 여학생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단순한 생각에 미니스커트와 목선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좋아하는 남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여학생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목선과 허벅지를 보고 있는 남학생은 편지를 읽습니다. 성적 시각물을 많이 접한 학생이라면 더욱 심하겠지요. 그동안 입력된 성적 상상력이 마구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서로가 자신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대방의 그러한 심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자기 생각과 느낌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단순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믿게 되지요. 그러나 남학생은 그 여학생이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못차림에 자신이 유혹받는다는 사실을 여학생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남성다움을 발휘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남녀간의 눈물의 씨앗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이성교제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기본 뿌리는 남녀관계의 불평등성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자를 주도해야만 하는 것을 남성다움의 기본으로 주입받는 사춘기 남학생들은 각종 음란물을 통해 여성을 인격체로 보는 시각을 차단 당하고 성적 대상으로만 보도록 길들여집니다. 여학생들이 즐겨보는 낭만소설은 음란물보다 남녀관계에 더 깊은 해악을 끼친다고 봅니다. 낭만소설은 부모 몰래 보아야만 하는 음란물과는 달리 비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흡수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소설은 사랑과 성의 남녀관계 그 자체이지요. 그 남녀관계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공식 구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딸을 사로잡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교묘한 성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딸들이 매우 당당하고 아들들은 많이 부드러워진 듯해도, 그 내면엔 거절 못하고 선택 당하길 바라는 피해자적 여성상과 강제와 폭력을 추구하는 가해자적 남성상이 그대로 깔려 있으며 이는 바로 이러한 사춘기 문화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거나 읽지 못하게 할 수만은 없어요. 음란물이건 낭만소설이건 그에 대한 판단 능력을 부모가 키워 줄 수 있다면 그런 자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없이 좋은 성교육 자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성친구의 보이지 않는 진실한 내면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물론 이성에 대한 성심리, 우리 사회가 주입시키고 있는 왜곡된 성통념 등을 바로 이해할 때 상대방에 대한 위한 배려가 가능하겠지요. 참다운 이성관계는 여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지난 호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잘못된 소재목이었습니다. 그동안 실었던 성 이야기를 총정리한 내용임을 알립니다)

◆ 중등 학교 열린 학습론(3)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까

김 두루한
(시흥교 교사, 중등열린교육연구회)

동희야, 오늘은 우리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꾸나. 그러면 과목 별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지 생각해 보자.

먼저 시험 준비용 공책을 하나 따로 마련해 보기 바란다. 왜냐 하면 나중에 네가 공부하며 정리한 것(공책)을 바탕으로 더 중요한 시험에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각 과목별로 시험 준비 계획을 시험 날짜에 맞추어 정하고 각 과목의 범위를 적어 두는 거야.

이 때 범위는 흔히 어떤 몇 쪽에서 몇 쪽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보다는 대개 시험 문제(배정)가 균형 있게 나온다고 봐서 교과서 차례를 보며 그 범위 안의 단위 이름을 적어 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나서 공책을 과목 별로 나누어 그 범위에서 교과서나 자습서 등에 있는 학습 목표를 적어 보는 거야. 본디 열린 공책을 써 왔다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적어 보는 거지.

그러면 국어의 경우부터 더 자세히 알아 보자. 먼저 단원 길잡이나 준비 학습을 다시 한 번 보면서 학습활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지? 문제를 풀 때도 바탕글(지문)을 먼저 읽기 보다 문제를 먼저 읽어야 시간도 절약하고 좀더 분명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학습 활동이 곧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는 바탕글(본문)을 읽을 때, 중심 문단을 정리하고 각 문단의 주제문을 적어 보며

줄거리를 확인해 두는 거지. 이 때 중요한 문단은 좀더 자세하게 읽어 보는 게 좋겠지.

다음으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수학은 말로 하기보다 수와 식으로 나타내니 좀 어렵게 생각이 들거야. 그러니 각 단원 별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무조건 외고 바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 공식이 나왔나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면 좋을 거야.

다시 말해 수와 식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그렇게 표현된 말뜻(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 이밖에는 교과서에 나온 문제를 풀어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알아 보자. 영어는 흔히 단어를 마구 잡이로 외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본문은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연습 문제를 대충 훑어 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이보다는 예를 들어 제목을 각 과 별로 먼저 확인하고 바탕 글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심 문단을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봐.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클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를 차례대로 자세히 보면 말하기 듣기 바탕글 읽기 쓰기 등이 고르게 나오겠지? 이것은 각 단원마다 똑같은 차례로 돼 있으니 각 과 별로 같은 주제로 묶어서 공부해 보면 좋을 거야. 모든 공부는 비교 대조가 바탕이니까.

동희야, 바라건대 신나는 중학 생활을 해 나갈 때 학습 요령을 잘 익혀 두면 한정된 시간을 잘 쓸 수 있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단순히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법론으로 도저히 쏟아지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지. 그러니 이런 요령을 바탕으로 각종 시험을 잘 준비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학습 목표에 맞춰 공부하는 동희가 되길 바란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야.

◆ 상담소 탐방(1) - 한국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가족과 성에 문제 있으면 연락하세요

학부모 상담실(가칭) 개소를 위해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본 회에서는 이번 호부터 학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담 기관 탐방 기사를 실기로 한다.

한국 여성 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여 양해경소장을 만났다. 상담소 내부는 공간 활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여 전화 상담 방 2개, 면접 상담 방 1개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전화 상담 방이 인상적이었는데 상담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의자 1개와 전화, 그리고 선풍

위에 전화를 받으면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각종 법률관계 서적, 자료집, 전화번호부책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족과 성 상담소는 열린 가족, 건강한 사회, 바람직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하여 95년 3월에 개소, 동북부에 지부도 두고 있다. 주로 부부 문제, 부모-자녀 문제 등의 가족 문제 상담과 부부의 성, 자녀 성교육 등의 성문제 상담, 그리고 성폭력 상담의 세 영역을 다루고 있다. 전화 상담이 주를 이루고 그 밖에 면접 상담, 서신 상담도 하고 있다.

상담 활동 외에도 어린이 대상의 자아 성장을 위한 강좌와 중학생 대상의

진로지도 프로그램도 있다. 현재 30여 명의 상담원들이 요일별로 시간을 정해 활동하며 성문제 연구팀, 집단 상담 연구팀, 외도 연구팀 등의 소모임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모아 계간지 '디딤'을 발간하고 있다.

이곳의 성문제 상담중 21%가 청소년의 성문제이다. 청소년 성상담 내용은 자위행위가 가장 많고 이성교제, 성충동, 성폭력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해경 소장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 공식적으로는 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화(物化)된 성이 범람 - 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결과이며, 성문제는 건전한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도 편부, 편모 슬하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따듯한 시선으로 바꿔줄 것을 당부했다.

내담자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올 때 상담실 운영의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하였다.

학부모회 회원이기도 한 양해경 소장은 학부모 상담실 개소 계획을 반가워하며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다.

'가족과 성 상담소'

일반 가족 문제 643-3606, 991-3606
성폭력 : 643-842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폭력"

- 일시 - 5월 11일(토) 오후 3:00
- 장소 - 종로 성당
- 문의 - 646-8858-9, 991-3657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차 상담원 교육을 마치면서

고교 정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번 상담원 교육에 참여하며 가진 최소한의 기대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였다. 지역에서의 교육 운동에 관심은 갖고 있으나 어떤 상(像)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박한 목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자의 역할과 자세'를 열강하는 강사들은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내용으로 신랄하게 내 속으로 들어왔다. 강의 시간은 나를 거의 흥분과 긴장의 상태로 몰아갔고 머리 속은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까지 끄집어내어 분석하느라 바쁜 회전을 하곤 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책도 들여다보고 노력도 하는 편이라고 자부해 온 나였지만, 나름의 함정과 잘못이 있었음이 발견되고, 무심코 넘겼던 주변 아이들의 문제가 때론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이었다는 것도 진단(?)해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개인, 가족의 잘못된 인성은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되었고, 일제시

대에나 걸맞은 교육 약법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는 사실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학부모 상담소'의 필요성이 생겼으리라. 이렇게 팍팍한 토양에서 이 땅의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참교육 학부모회'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혼자서나마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직까지는 상담에 대한 개론이었고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강의에 더 큰 기대를 해본다. 후속 강의를 조금씩 기대하는 수강생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알찬 강의였다는 증거이고,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교육에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교육은 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앞으로의 삶에 굵직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큰 의미로 남으리라 생각한다.

이선영(서울 성북구 길음동)

작년 11월 18일 여수 지역 참교육 학부모회가 창립한 후 우리는 12월 커다란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평준화 지역인 이곳의 고등학교 정원이 지원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학교 졸업생이 6871명인데 비해 입학 정원이 5634명이므로 약 1200명이 이 지역의 학교에 갈 수 없어 타지역 또는 산업체로 가거나 재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앞으로 3년이나 계속될 고교진학문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한 청소년 문제가 이 지역의 사회문제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 당국의 시각은 우리와 사뭇 달랐다.

첫째는 3년 후면 지원자가 자연 감소되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 정원을 늘일 수 없다는 것, 둘째는 도교육청은 어느 특수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를 봐야 하며 그렇게 하면 전체 수급이 맞기 때문에 어느 특수 지역에만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 있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이유도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한편, 여천지역 탈락자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5학년(227명)을 추가모집한다는 답을 얻어내었다. 그

러나 이 수는 전체 탈락자를 구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고 70%이상이 남학생을 위한 것으로 여학생 700여명이 진학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는 교육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 여수 학부모회는 여학생 정원을 2학년만이라도 늘릴 수 있게 1월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벌였다.

도교육 위원과 도의원의 만남, 시 교육청과 도교육청 방문, 시장, 시의장과 면담, 교육 청원을 위한 2차례의 가두 서명, 도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원, MBC, KBS 방송 보도 요청 등 급기야는 도교육청에서 침묵 시위까지 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2월 15일 부영여고 2학급을 증설, 새학기 이전에 모집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그 때 함께 했던 탈락자 학부모들이 한 사람도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아 조금 아쉬웠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잘 다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빌었다.

이것으로 고교 정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내 아이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가 가능한 한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우리 참교육 학부모회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박경희(전남 여수시 광무동)

◇초등 고학년을 위한 책

최열 아저씨의 우리 환경이야기

청년사/최열 지음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어린이는 별로 없다. 학교에서 해마다 자연보호나 환경에 대한 글쓰기 숙제를 내고는 있지만 환경문제를 피부로 심각하게 느껴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월 21일이 지구의 날임을 알고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천을 하는 어른은 몇이나 될까?

'우리 환경 이야기'는 현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계신 최열아저씨가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쓴 책이다. 흔히 환경 이야기하면 공기나 물의 오염, 쓰레기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

리가 먹는 음식물이 각종 화학약품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 또 수입식품, 수입농산물의 농약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 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이나 바다가 왜 오염됐는지 강이 오염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따위를 대화하듯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최열아저씨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0세기가 소비가 미덕인 세상이었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절약이 미덕이며, 재활용이 미덕인 세상, 작은 것이 아름다운 세상, 오래된 것이 인정받는 세상, 생명의 세상이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문화 체육부, 교보문고, 한우리독서운동본부 추천도서이기도 하다.

(조봉호 기자)

◆지부탐방-전주지부

함양지방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모든사람이 주변의 산야에 나무를 심는 날인데 아주 특별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그이름 참교육 학부모회 전주지부 회원들이다.

학부모회 역사기행에서 소백산맥 줄기

에 자리잡고 있는 육십령 아래의 정자문화와 함양지방의 문화유산을 향토사학자 신정일 선생님 안내로 계획한다기에 과거 몇차례 둘러본 곳이지만 이 기회에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막상 당일 출발지인 전주시청 광장에 도착해 보니 어른과 어린이들이 반반정도로 대형버스가 만원 이었다. 전주를 출발하여 진안 장계를 거쳐 육십령에 도착했다. 그 옛날 도둑이 들끓어 육십령이 모여야 넘을수 있었다는 고개였지만 지금은 도로가 말끔히 포장되어 있었다.

덕유산 골짜기에서 시작된 계곡을 따라 맑은 시냇물가에 위치한 정자들, 거연정, 농월정을 찾아보고 안의면 안의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조선중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이 현감을 지낸 안의동헌이 있던 자리로 일제때 동헌을 헐고 그자리에 현재의 초등학교를 세웠다는 안내 선생님의 설명에 꼭 그자리에 학교를 세웠어야 하는가의문이 생겼다.

학교정원의 연암선생 기념비 앞에서 먹은 김밥이 그날따라 더욱 맛있었다. 읍내의 허삼돌가옥과 광풍루를 둘러보고 역사기행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보게 되었다. 민족의 비

극 6.25전쟁이 한창인 1951년 2월에 공비토벌 부대에 의해 양민 7백여명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채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전주로 오는 귀로에 함양원내의 학사루를 거쳐 조선 오현중의 한분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으로 발길을 옮겼다. 약 3천평의 넓은 집터에는 솟을대문, 행랑채, 사랑채, 중문간채, 안채, 아래채, 광채, 사당등이 보존되어 있어 4백년 전 고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참석한 모든회원이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하루가 되었다며 오늘의 코스를 다른 지부에게 소개하여 줄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태기(전주시 남노송동)



학부모회 활동 모음

◇서울 동북부지부

무엇이든 열심히 우리 지부

초창기에 너무 열심히면 곧 지친다는 선배들의 말씀에 뜨끔하면서도 처음에 잘 되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임원 모두 열성이다.

매주 월요일이면 일요일의 피로를 힘겹게 떨치고 나와 하나라도 더 들으려는 PET 교육도 4월 마지막 주면 마치고 된다. 투자한 시간과 돈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4월 20일에는 관찰 기행의 첫번째 행

사로 나무 관찰이 있었다. 일반인에게 개방이 안되는 토요일에 홍릉 수목원을 누비면서 나무 박사님의 설명을 들었다. 아는 만큼 느낀다더니 이름을 알고 생태를 듣고 보니 나무마다 꽃마다 애정이 더 갔다. 듣는 중 마는 중 뛰어다니기만 하던 아이들도 집에 와서 쓴 관찰 기행문은 근사하게 쓴 걸 보니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게 아이들이나 보다.

◇울산지부

학교운영위, 학부모 입장 전달

전교조 울산지회와 공동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하기로 한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도의회 교육사회분과 의원을 통해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건의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와 운영위원 선출 문제 등

학부모회의 입장을 도의원에 설명하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라도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도의회는 4월 23일에 열리며 이번 회기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지부

어린이 날, 적극적인 행사 참여

"어린이날, 이렇게 놀시다"란 주제의 4월 월례회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3종형식으로 준비하여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스릴 넘치는 유원지 놀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다소 지리하고 따분할 수 있겠지만, 넓은 운동장을 휘저으며 친구들과

힘을 겨루는 하루동안의 참여는 아이들을 훌쩍 반하게 한다며 지난해 참석했던 회원들은 열변을 토했다.

특히 매년 진행된 "학부모 한마당"은 학부모, 교사와의 만남의 자리로서 올바른 학교참여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올해도 기대가 크다.

◇청주지부

일과 땀의 의미를 아는 아이

지난 4월 10일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육"이란 주제의 강좌가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 강좌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온 나라 안에서 인기 높은 참 스승이신 도종환 선생님이 맡으셨다. 학부모들의 스승이 되신 셈이다.

강좌 주제는 "노동 교육"에 관한 것으로 일과 땀의 의미를 아는 아이로 기르자는 내용이었다. 진지한 강연은 모인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였던가 반성하는 모습들이었다.

노동의 의미는 집안 일에서부터 찾도록 해야 하며 구별 없이 가사노동을 하

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어머니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게 되었는데, 모두들 남편을 잘 교육시켜야 아이들이 제대로 본받을 수 있다고 열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좌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에 첫아이를 입학시킨 초보 학부모도 있었는데, 벌써 돈봉투 문제로 상처받고 있었으며, 경직되고 보수적인 학교 분위기와 존경스럽지 못한 선생님의 자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들 답답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 보자고 했다.

◇서울 관동강남지부

TV 옆에 시청 기록장을

인사동 문화 기행에는 회원 자녀 중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오랜만에 신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탐골 공원에 들려 아이들 간식시간을 가졌는데 모여든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못내 아쉬웠다.

4월 월례회는 'TV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시간 여의 발제와 회원들의 토론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열린 TV 공간을 아이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누

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한 회원이 제시한 방법 중에 신문에 보면 TV 시간표가 있는데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식구대로 체크해 보고 나서는 꼭 시청 기록일지를 쓸 수 있도록 TV 곁에 시청기록장을 준비해 두면 좋다는 의견과 함께 이 방법도 어른이 먼저 시작하면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각 방송사에 시청자로서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중서부지부

청소년 봉사활동

4월 18일에 '자녀들의 봉사활동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례강좌를 신촌사무실에서 가졌다.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옥선생님과 봉사활동의 의미, 현장에서의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돕고, 단위 학교의 학부모 활동의 하나로 봉사활동의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또 일산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회원들과 학부모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익산지부

5주년 창립을 맞이하며

지난 2월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4월 2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와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 오성숙 회장을 감사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3일 5.31 교육 개혁안에 따른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박일범 선생님)로 강좌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지만 내용 면에서는 더 바랄게 없었다.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가족 합창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0653-834-0347)

◇서울 강서남부지부

DY 학습법 강의 열어

4월 19일, 강서남부 지부에서는 DY 학습법에 대한 입문 강의가 열렸다.

발안자(?)인 원동원 박사의 이름에서 DY를 따온 학습법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재능, 적성을 중시하는 인성 교육에 바탕을 두고, '지식'이 아닌 '지혜'와 '실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인적 교육의 3요소로 지

력, 심력, 체력을 들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3분 독상, 3분 체력 등 몸과 마음의 건강과 성결(聖潔)을 중시하는 것이 특색이라 보여진다.

참석하신 학부모들 중 멀리 동북부, 중서부의 회원도 있었는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입문서를 읽은 후 다시 모임을 갖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 『쑥쑥문고 10』



전에 오는 이야기

백두산에 얽힌 전설 모음,

금덩어리에 팔린 욕심쟁이

출판부 역임 김 4800원 176쪽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만큼 많은 전설을 지니고 있지요. 천지와 옥장천, 방학대에 얽힌 이야기를 아세요? 요즘도 할머니께서 백두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 주시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자유롭게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통일을 위해 애쓰다면 곧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먼저 백두산에 가 보기로 해요.

우리교육 서울시 중로구 무악동 9-13
영업부 730-1273

어린이날 행사

서울지역

새날을 열어 갈 아이들의 한마당-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 일시: 5월 5일 10: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 내용: 민속놀이마당, 연극마당, 노래부르기대회, 역사마당, 환경마당, 도서전시마당, 유아마당, 학부모마당, 건강마당, 장터마당
- 참가비: 어른 2,000원
- 문의: 634-6508, 675-9068

서울강서남부지부

새날을 열어 갈 아이들의 한마당-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 일시: 5월 5일 11:00
- 장소: 파리공원 (목동 아파트 2단지 앞)
- 내용: 민속놀이마당, 가족자랑마당, 전시마당, 학부모마당, 공연마당, 장터마당, 배움마당
- 참가비: 어른 2,000원
- 문의: 634-6508, 642-8707

서울 동북부지부

- 일시: 5월 5일 11:00
- 장소: 마들 근린공원 (상계 1단지 건너편)
- 내용: 민속놀이마당, 연극인

형극 공연, 우리문화 배움마당, 좋은 책 전시, 노래부르기 대회

- 참가비: 어른 2,000원
- 문의: 930-6933, 939-6857

인천지부

야! 야! 이리 나와라

- 일시: 5월 5일 10:00
- 장소: 인천교육대학교 대운동장
- 내용: 전통놀이마당, 학부모한마당, 청소년마당, 유아마당, 장터마당, 모형비행기 조종, 그림마당
- 준비물: 도시락
- 참가비: 어린이 2,000원
- 문의: 032-464-3169

대구지부

야! 야! 모두 나와라

- 일시: 5월 5일 10:00
- 장소: 대구교육대학교
- 문의: 053-741-7366

마창지부

야! 나온나, 노을자

- 일시: 5월 5일
- 장소: 경남대학교 운동장
- 문의: 0551-45-0341

울산지부

새 세상에 주어진 우리 아이들

의 잔치 한마당- '96 얼썬우리들은 4

- 일시: 5월 5일 10:00
- 장소: 울산대학교 운동장
- 내용: 놀이동산, 과학동산, 환경동산, 통일동산, 그림동산, 유아놀이, 볼거리마당, 먹거리마당
- 참가비: 2,000원
- 문의: 0552-92-8053/4

부산지부

'96 가슴펴고 어깨걸고-땅차고 하늘짚고 하나되어 야~호!

- 일시: 5월 5일 10:00
- 장소: 부산교육대학교 교정
- 내용: 유아마당, 전시마당, 과학동산, 놀이동산, 문화동산, 이야기동산
- 문의: 051-247-1795

전주지부

- 일시: 5월 5일 9:00
- 장소: 전주교육대학교
- 내용: 폭죽잔치, 공연마당, 민속마당, 가족마당, 놀이마당, 문화마당, 배움마당, 대동마당, 볼거리장터, 먹거리장터
- 문의: 0652-231-6242

학부모 신문 편집 강좌

- 5월 22일 한국의 교육 현실과 학부모 운동
- 5월 29일 신문유형 결정에서 편집 기획까지
- 6월 5일 취재활동 및 기사 작성법
- 6월 12일 편집 원론 및 레이아웃, 제목뽑기
- 6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신문, 학급신문, 가족신문 만들기

일시: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방배동 청소년학회
대상: 교육운동에 관심있는 학부모 및 일반
참가비: 25,000원
문의: 634-6508, 675-9068

제1기 2차 상담원 교육

학부모 상담실 개소를 위한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5월 28일 (화) 상담의 원리와 기법
- 5월 30일 (목) 발달 단계에 따른 자녀의 특성
- 6월 4일 (화) 성격 이론과 상담
- 6월 7일 (금) 부모 자녀의 갈등
- 6월 11일 (화) 학습 지진아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실제 및 행동 지도
- 6월 13일 (목) 5.31 교육 개혁안과 학교운영위원회
- 6월 18일 (화) 심리 검사의 측정과 활용
- 6월 20일 (목) 전화 상담의 기술

일시: 5월 28일부터 6월 20일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00-12:30
장소: 미정
참가비: 40,000원
문의: 634-6508, 975-9068

* 1차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알림

서울 강서남부지부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하는 미술 공부-살아 있는 그림 공부, 아이의 그림을 읽어보자(이성경)

- 일시: 5월 22일 10:00-12:30
- 장소: 당산동 사무실
- 대상: 취학전 유아나 초등학교 1,2학년의 학부모
- 준비물: 아이가 그린 그림
- 문의: 634-6508

서울 관동강남지부

PET 부모 역할 훈련 공개 강좌 (박광수)

- 일시: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9:30-12:30

- 장소: 방배동 사무실
- 문의: 0342-703-8933
- 5월 산행-관악산
- 일시: 5월 26일 10:00
- 장소: 서울대학교 정문
- 문의: 863-0262

서울 동북부지부

책읽기, 삶읽기 어린이 독서 교육을 위한 학부모 강좌

- 일시: 매주 목요일 10:00
- 5월 16일 좋은 어린이 책 어떻게 고를까 (이향숙)
- 5월 23일 어린이와 그림책 (이성실)
- 5월 30일 옛이야기 들

려주기(조완석)
6월 13일 여러 가지 독서 교육 방법(김옥성)
6월 20일 독서 문화 운동과 학부모 역할 (오춘식)

- 장소: 노원구민회관
- 수강료: 30,000원 (전화 접수 후 입금해 주세요)
- 문의: 939-6857, 930-6933 977-4206

서울 중서부지부

연극지도, 이렇게 해봅시다 (김지예)

- 일시: 5월 16일 10:00
- 장소: 신촌사무실

- 문의: 336-5988, 386-7631
- 청소년 심성훈련 프로그램
- 일시: 5월 11일-6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6시)
- 장소: 신촌사무실
- 대상: 중·고등학생
- 문의: 336-5511, 386-7631

대구지부

- 월례회-야생화 답사
- 일시: 5월 10일 10:00
- 장소: 대구 앞산
- 문의: 053-741-7366

여천지부

- 함께 산에 오르기
- 일시: 5월 1일 10:00

- 장소: 제일모직 사택 뒷산
- 동화구연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5월 8일 10:00
- 장소: 열린교실
- 학부모 신문 읽기
- 일시: 5월 15일 10:00
- 장소: 열린교실
-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강연회(전성은)
- 일시: 5월 22일 2:00
- 장소: 열린교실
-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육' 책 읽기
- 일시: 5월 29일 10:00
- 장소: 열린교실
- 문의: 0662-84-5116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 통신 판매
전화 한 통으로 <산하어린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

이오덕·권정생·위기철·신경림·이현주·윤기현·지동환·강정규·이재복·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M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M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MCA, 군산 YMCA, 어린이 문학 진흥회, 부산 YM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새로 나온 책

산하어린이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띠에 얽힌 궁금증과 재미난 이야기를 한데 엮어 놓은 열두동물 열두 가지 이야기. 흥미진진 공부도 만점.

산하어린이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국보'책. 박물관마다 보물같은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마다 박물관이 하나씩.

▶생필품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자들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 16 나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교실 어린이
-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불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불학교육연구소
- 41 나만의 교실 윤태규
-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현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최향숙

▶과학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현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정영
- 62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악착같이 달려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성
- 3 4 5 임궏정과 임궏정들 1·2·3 김우일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홍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운경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운경
-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허완·김재복

▶인물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운동장 평전구
- 49 신채호 김서경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진주
- ▶장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성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허수아비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 14 바보와 바보 박성규
-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딸꼬마이 이상진

-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성규
- 23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용·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화초리와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8 고독한 가수과 꼬마배우 이상진
-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 30 섬마을 아이들 신승형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37 어린이들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다고 꺾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철지의 매주중 이재복
-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풀빵장수 박성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허수아비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 69 느릅길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6 흰둥이와 겹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 80 오얏꽃을 낳은 편지 권선자 외
-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운배
- 84 동글이와 덩글이 홍윤희

89 하루살이 이물살이 장문식

▶예술이야기

- 36 민요기행 신경림
- 68 열세구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균
- 74 열세구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식
- ▶옛날이야기
- 27 아기 장수 조호성
- 75 깨비 깨비 참깨비 김종태
- 77 백두산 산삼과 매선이 이야기 동태
- 78 천지와 돌바늘 이야기 동태
- 87 일만이천봉 이야기 고개 이야기 동태
- 89 하루살이 이물살이 장문식

출판사 산하

121-012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 10